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선교회 모임 후에 담임목사실에서 기획위원회가 열립니다.

청년부가 주관하는 이주노동자 돕기를 위한 일일찾집이 오늘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열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생협에서 사과나무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3월 산행은 26일(토) 수리산으로 갑니다. 함께 하실 분은 당일 오전 10시 30분까지 명학역으로 오십시오.

일본의 지진 및 해일 피해 구호를 위한 헌금을 다음 주일(27일)에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달력에 따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 * 식 당 봉 사 :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왕영순 임미심 송동준 문복순
- * 3 / 27 식당봉사 : 청파찬양대
- * 설 거 지 봉 사 : 이국노 김민화 조은나 주경진 이윤정
- * 다음 주 설거지 : 이준하 노우종 강미선 안길상 윤주원
- * 새 교 우 : 김정민(2남) 이해령(5여) 김범윤(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7. 사랑의 하나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열었던 땅에서 푸른 새순이 돋아나게 하시며, 죽은 것 같아 보였던 나뭇가지에서 어여쁜 꽃이 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었던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게 해 주십시오. 메말랐던 우리의 일상도 활기를 되찾게 해 주십시오.

주님, 쓰나미 피해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일본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루아침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여진과 방사능 누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살피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손으로 더 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몸과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사람을 보듬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41:10 인도자

♣ 교 독 문 125. 사순절(2)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김인걸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272(통330).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다함께

♣ 성경봉독 I. 애 3:12-24 신진식 선생
 II. 마 5:17-20 조향미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 양 찬양대

말 씬 I. 희망의 연금술 김재흥 목사
 II. 다른 눈으로 보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준우 우순덕 윤정덕 구성실 김철수 유영남 방문성 박혜경 김용진
 박효선 김정길 최숙화 김준호 곽혜자 김훈동 유경순 박병구 김정애
 박시내 방 민 박창운 허정윤 방 준 오진훈 노순옥 윤미경 윤수진
 이재문 임주빈 최현옥 장대호 한숙경 최종훈 김금하 이진영 한양미
 곽새롬 심상숙 안보혜 권채영 이광용 형인순

월정헌금:

고속이 박인혁 박준희 이기분 송임희 유상진 유은정 이은자 이인웅
 오송경 이정은 전영자 최윤희 김혜권 박재임 장동훈 김주영 박권동
 박찬덕 무명

감사헌금:

이진영 한양미 신진식 변혜영 박병구 김정애 오송경 류건형 이주은
 변재민 이소혜 박권동 하소연 문홍일 이재문 최종훈 김금하 한지혜
 한준혜 한상익 정영선 이봉옥 무명

녹색꿈헌금:

김준우 우순덕 김기석 김희우 김용진 박효선 곽상준 최경미 김용길
 최영혜 이혜인

생일감사헌금:

박윤숙 윤수진 박혜경 임주빈 정완수

	장 혜 속	백 혜 속	송 임 회	박 영 희
	노 순 옥	정 경 레	김 윤 수	김 미 순
	임 정 자	최 경 미	이 소 순	서 원 금
	문 영 혜	이 명 희	김 진 경	신 영 신
	안 정 속	진 정 속	박 옥 순	진 정 속
	박 흥 재	곽 권 희	백 묘 현	정 선 희
	박 효 선	허 정 윤	김 현 주	허 정 윤
	이 순 정	김 금 순	이 봉 옥	오 복 순
	이 형 속	권 미 속	이 형 속	김 재 광
	안 흥 속	오 현 정	오 현 정	정 현 주
	정 영 선	이 현 속	김 희 우	정 영 선
	이 영 란	박 미 영	배 삼 순	윤 정 화
	박 혜 경	조 향 미	정 현 선	정 현 속
	김 재 흥	오 자 영	교 회	교 회
	김 기 석	이 건 식	교 회	교 회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엘리스 워커

그들이 그대의 어머니를 고문할 때,
 그들이 그대의 아버지를 고문 할 때,
 그대의 형제를 그대의 아리따운 누이를 고문할 때,
 그들이 그대의 지도자를 죽인다면
 그대의 눈물 같은 연인을 죽인다면
 그대를 고문하여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오면
 나무를 심으세요
 나무를 심으세요
 나무를 고문하여 그대의 푸른 숲마저 사라지면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 이 시의 원제목은 '고문'입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찬양	475(통272). 인류는 하나 되게	다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작은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넓은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추구하되, 행함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진리의 초대를 외면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좀더 넓은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내 생각에 진리를 끼어 맞추기보다는 진리에 따라 내 삶을 바꿔가겠습니다. 작은 깨달음도 삶으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기도 : 권미숙 집사 시편을 거닐다 / 손성현 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공동기도	권미정 집사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최현옥 집사

3월	영접위원	김인걸 조문규 이건식 문영혜 진정숙 신영신
	헌금위원	방문성 박성실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일기

7시 반쯤 목욕탕에 갔더니 모녀 세 사람의 여자거지가 와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살갓이 검고 어깨까지 늘어뜨린 머리칼은 엉클어지고 까실까실했습니다. 내가 갔을 땐 탕에서 나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남자가 입는 윗도리로 너털너털해진 걸 김지도 얇고 빨지도 얇아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되는 분은 단지 빨간 속치마와 기름때가 묻은 국방색 외투를 입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들을 보자 대뜸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는 사람 오는 사람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진, 이진 훌륭한 손님이네!” 하며 큰 소리로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뭐라 떠들어도 입을 다문 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탕에서 나와, “야아, 이것 봐, 구질구질하게시리, 밖에 나가 입어” 하고 밀어내듯이 뉘달했습니다. 그러자 중3학년쯤 되어 보이는 언니가 “아니예요. 이는 없어요.”하고 말했습니다. 이가 옳을까 봐 나가라고 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누가 이가 있다고 했나. 떠들면 가만 안 둘 데다. 이 멍청아!” 하고 아까 번 아주머니가 화를 내며 눈을 흘겨보며 밉살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말문이 막혀 입을 다물었다가 곧장 어머니를 향해 “엄마, 빨리 입어!” 하고 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 하고 어쩔 수 없는 듯이 대답하고는 얼른 서둘렀습니다. 옷을 모두 입자 세 사람은 말없이 나갔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은 약간 비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내가 가난한 때문인지 이런 사람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옵니다. 모양새나 옷차림이 더러울 뿐인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업수이 여겨지고 미움 받는 것입니다. 같은 인생이면서 남에게 미움받고 멸시당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거지가 될 지경까지 왔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겠어요. 죽어버렸으면 싶었을 때는 없었을까요? 분명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살아온 것입니다.

나는 세 사람이 나간 뒤를 슬픈 마음으로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밤은 어디서 잘까요? 먹을 것은 있을까요? 내일도 또 어디선가 누구한테 미움 받으며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가엾기 그지없습니다. (1955년 4월 23일)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누나인가 하고 뛰어나가 보았더니 낮선 남매거지가 깡통을 들고 밥을 얻으러 왔어요. “밥 좀 주이소.” 하는 소리가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지요. 태순이를 데리고, 순나를 데리고 이렇게 남의 대문간을 찾아다녔지요. “어서 들어오나.” 나는 얼른 거지 남매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어찌 보면 좀 낮익은 얼굴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낮선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부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순나가 뜨끈뜨끈한 밥을 두 그릇 떠서 그들에게 주었지요. 두 남매는 눈이 둥그런 채 나를 한번 보고 밥그릇을 한번 보고 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었던 모양이지요. “피딱 먹어라. 배 안 고프나.” 하니 두 남매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나와 순나는 우두커니 서서 밥 먹는 남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쌍한 이것들이 옛날의 우리였습니다. 정말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만 술을 잡숫지 않고 부지런히 상일을 하신다면 이놈들 둘쫘은 같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남매를 보내며 나는 다음에 또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문간에 한참 동안 서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가는 두 남매를 지켜보았습니다. (1965년 10월)

이 두 개의 일기 중 앞의 것은 일본에서 사는 동포 소녀 스에코의 것이고, 뒤의 것은 윤복이의 일기다. 두 어린이는 한 10년 사이를 두고 태어나 똑같이 열 살 때부터 일기를 썼다. 두 아이의 일기책을 읽고 있으면 정말 천사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싶어진다. 열 살짜리 어린이들이니 무엇을 알겠는가? 이 아이들은 겨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되어 일기를 썼다. 불교에 입문해서 수십 년간 참선을 하고 해탈한 큰스님도 아니다. 성경책을 수백 번 읽고, 신학 공부를 하고, 수백 권의 성경 주석을 공부한 신학박사도 아니다. 물론 공자, 맹자도, 노자의 도덕경도 모른다. 이 아이들의 학교성적은 중간쯤 되니 머리 좋은 천재도 아니다. 집이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이리저리 쫓겨 다니며 하루하루 눈물겹도록 힘들게 살았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이토록 착하게 살았다. 말로만 착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착했다. 그들의 일기는 하나도 숨기거나 꾸미거나 하지 않고 너무 솔직하게 써서 그 솔직함에 먼저 감동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이 아이들의 일기는 너무도 단순하다. 이 아이들의 일기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말한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것을 이런 아이들이 증명해 보이고 있다.